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시 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기준. 교과 성적이나 논술 성적,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 불합격 처리함. 최근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은 전형의 특징을 살리고자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임.

-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등이 대표적이고, 경인 교대나 청구교대 등 57개 대학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도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는 적용하나 일반 전형에서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도 경희대 55명, 고려대 10명, 서울대 75명, 성균관대 25명, 연세대 89명, 중앙대 16명, 한양대 45명 등은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수능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예시와 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같은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 과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전형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절대평가를 하는 영어와 국사를 다른 과목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지정하는 대학도 있고, 다른 과목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탐구 과목을 활용하는 방법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올림하는 대학도 있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대학도 있습니다.

### 예시

성균관대 논술 우수 전형  
인문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국어, 수학(가/나), 사탐/과탐(2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 절사,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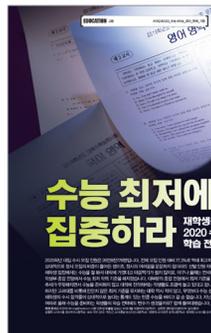
단, 글로벌리더학 및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은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국어, 수학(가/나), 사탐/과탐(2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 절사,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3 이내.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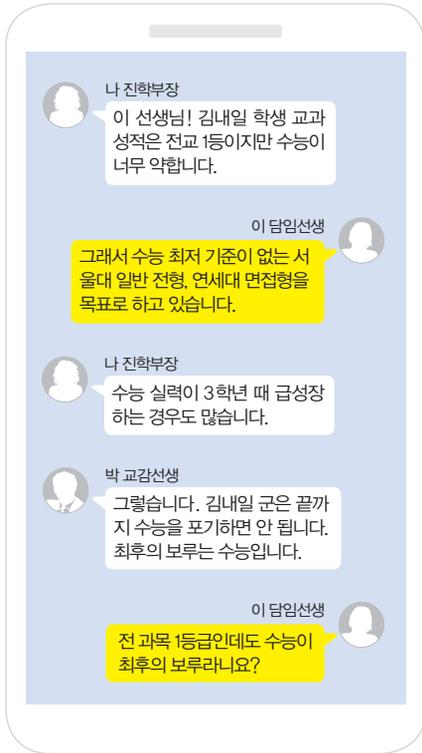
### 기사 속 입시 용어 다시 보기



정 교사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보다 수시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능에 접근할 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요구하는 등급에 맞춰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낮아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 본지 904호

재학생을 위한 2020 수능 학습 전략  
수능 최저에 집중하라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와 연세대는 물론 의과대학들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고3 교실은 여전히 수능 준비에 집중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 성적만큼 확실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모든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서강대도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한국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와 중앙대, 동국대 등도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위권 대학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시 판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은 재학생들이나 반수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입니다. 한양대 논술 전형은 2019학년에 80.7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특히 활동 우수형)까지도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수능 최저 기준이 경쟁률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표〉는 2019 수시 전형에서 경쟁률이 크게 변하거나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을 정리한 것입니다. 건국대는 논술 시험의 시기를 수능 전에서 수능 후로 변경하면서 높아졌으며, 시립대는 학교장 추천이 폐지되면서 높아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자연 계열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6 이내에서 2개 영역 합 4 이내로 완화되어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화여대 인문은 3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5 이내로, 자연은 2개 영역 등급 합 4에서 3개 합 6 이내로 더 까다로워져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인하대와 한양대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는데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㉞

대학	전형 유형	2019학년 경쟁률	2018학년 경쟁률	비고
건국대(서울)	KU 논술 우수자	43.5	34.9	시행 시기 변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	52.6	46.0	추천 폐지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26.3	19.0	최저 기준 완화
이화여대	논술 전형	22.8	35.4	최저 기준 강화
인하대	논술 우수자	46.6	48.7	최저 기준 없음
한양대	논술 전형	80.8	87.7	최저 기준 없음